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동물’을 통한 환경인식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고 영

‘동물’을 통한 환경인식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고 영

인 준 서

최고영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의원_____ (인)

심사의원_____ (인)

심사의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류는 모든 생명 중에서 유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탄생(誕生) 이래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과학이 형성된 17세기 이래 인류의 문명사는 그것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진보(進步)를 향한 바쁜 걸음을 재촉해왔다. 그리하여 17세기경부터 과학은 과학기술의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연은 과학기술의 횡포(橫暴) 앞에 속수무책인 채로 던져지게 되었다. 그리고 21세기가 된 시점에서 무차별적 자연파괴에 의한 생태계의 오염(汚染), 자원의 고갈(枯渴), 동식물의 멸종(滅種)등을 경험하며 우리는 과학기술이 약속한 미래가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節減)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이란 더 이상 극복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적(敵)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가 아껴주고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이요, 인류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인 것이다.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현실을 과학이나 제도(制度)상의 영역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미술가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주체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의 한 부분으로서 미술의 위치를 확장시키는 열린 태도가 지금의 우리가 되돌려 받고 있는 생존 위협에 대한 반성과 재인식(再認識)이라고 보았다.

본인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동물 조각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연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동물들 또한 살 곳과 먹이를 점차 잃어서식지를 이동하거나 멸종되어가는 모습에서 자연과 동물의 관계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하였다.

본 논문은 「‘동물’을 통한 환경인식에 관한 표현」에 관해 연구, 분석한 결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과 동물에 대해 서술하여 작품 형성의 배경을 나타내었다. 둘째, 조형적 특성을 형태의 특징과 구조, 색채의 상징과 의미로 구분하여 고찰 및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7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환경의 중요성 인식	3
2) 자연과 동물	5
2. 조형적 특성	6
1) 형태의 특징과 구조	6
2) 색채의 상징과 의미	9
3. 작품분석	11
I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그린랜드를 찾아서I, 백시멘트 타일, 가변설치, 2012	11
【작품 2】 그린랜드를 찾아서II, FRP, 300x8x10(cm), 2012	14
【작품 3】 그린랜드를 찾아서III, FRP, 60x8x10(cm), 2012	16
【작품 4】 그린랜드를 찾아서IV, FRP, 각 40x40x50(cm), 2012	18
【작품 5】 Double A animals, 복사용지 박스, 각 15x15x15(cm), 2012	20
【작품 6】 그린랜드를 찾아서 V, 아크릴물감, 100x100(cm), 2012	23
【작품 7】 그린랜드를 찾아서VI, 실크스크린, 120x20(cm), 2012	25

I. 서론

세렝게티(Serengeti)는 탄자니아 서부에서 케냐 남서부에 걸쳐 있는 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으로, 30여 종의 초식동물과 500종이 넘는 조류(藻類)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남쪽의 탁 트인 초원, 중심부의 사바나, 그리고 북쪽과 서쪽의 수목(樹木)이 우거진 목초지(牧草地) 등으로 다양한 지형적 분포를 보이며, 작은 강과 호수, 늪지들도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다.

본인은 세렝게티의 초원(草原)을 상상하며 작업하였다. 우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生態系)를 그린랜드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지칭하고 동물을 매개체(媒介體)로 하여 표현하고 대중(大衆)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의 특성으로는 작품 제작 시 기하학(幾何學)적 형태와 패턴(pattern)으로 작품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것을 들 수 있고, 단순화시킨 형태로 조형성(造形性)을 보다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다수가 수평(水平)적인 구조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설치 방법 또한 수평적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는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동물들과, 그들이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주로 강조하여 서정(敘情)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 보이는 색(色)을 통해서는 자연 이미지(image)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생각을 토대로 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둘째, 자연과 동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인의 작품에서 동물을 통한 환경 인식에 관한 조형적 표현의

특징을 정의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논(論)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환경의 중요성 인식

환경(環境)이란 생물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일컫는다.

환경은 인간과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외부적인 요인을 총칭하는 말로 대기, 물, 토양 등 생명체를 둘러싼 모든 것을 뜻한다. 인간과 동물 모두는 외부에서 필수적으로 영향원(影響圓, circle of influence)을 섭취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데 이런 영향원들이 오염된다면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 및 동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오게 된다.

이렇듯 환경과 생물은 모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스란히 생명체에게 돌아온다. 즉 환경을 보전하지 못하고 오염시키게 되면 결국 그 오염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과 다른 생명체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이유로도 환경보전은 필수인 것이다.

생물은 생존 조건으로서 서식(棲息) 환경을 갖춰야 한다. 즉, 생물은 생존에 필요한 먹이와 살아가는 터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후와 함께 번식(繁殖)을 방해 받지 않는 환경이라야 생존할 수 있으므로 이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거나 파괴 된다면, 그 생물은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조건을 두루 갖춘 생물은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고착(固着)하는 토착(土着) 생물이라 하고, 그러한 조건 중 어떤 결합이 있는 생물은 그 보충 수단으로 적성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생물은 철새나 귀소성(歸巢性) 물고기 등이 있고, 아프리카의 자연에서는 대단위의 야생동물이 먹이를 따라서 대이동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그 생물의 생활을 충족(充足)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어떤 자연적 변화가 이르게 되면 그 시대의 생물은 변화된 환경에 대하여 적응하여 살아남거나 적응을 못하면 도태(淘汰)[멸종(滅種) 또는 변종(變種)]도 되고 진화하기도 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지구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환경 변화의 과정이 수 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본인은 동물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을 사용하는 주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생태계의 평형(平衡)이 유지될 때 자연이 보존될 수 있으며 우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동물을 매개체로 함은 자연과 동물은 서로 유기적(有機的) 관계에 있으며 동물의 도상(圖像)은 대중에게 가장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의 변화로 인하여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속 주요 매개체로 등장하는 코끼리는 숲에 사는 대표동물로 가장 생태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은 궁극적으로 환경 속 자연에 대해 고찰(考察)하고 동물의 도상을 매개체로 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자연과 동물

코끼리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 가장 몸집이 크며 무게가 수 톤(ton)에 달하고 산림이나 사바나에 서식하며 매일 풀이나 나무를 먹고 사는 자연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결 관계에 있다. 본인은 코끼리라는 무거운 동물의 존재감을 작품에 끌고 들어오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모습은 인간의 생활모습과도 닮아 있어 이입(移入)시키기 좋은 대상이 된다.

작품에서 ‘코끼리’는 우리를 작품으로 끌고 들어가 작가가 제시한 그린 랜드로 나타낸 이상공간에 이입시키며,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켜 사유(思惟)의 공간에서 자연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작품에는 코끼리와 토끼, 곰이 등장하는데 이는 숲을 생각하고 연상되어 지는 동물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대표 동물로 생각한 코끼리는 본인에게 있어 정신적 중심을 이루게 하는 존재로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하며, 본인을 대변하는 일인칭 시점으로 자연 안에서 철학(哲學)적 탐구(探究)를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조형예술이 상징으로서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는 우리의 눈에 비치는 자연의 가상(假想)으로서의 외관(外觀)이며, 자연의 시각적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는 우리의 눈이 직관상(直觀像)으로서 자연의 외적 대상에 대하여만 들어낸 감정적 의미이다. 그런데 건축이나 장식과 같은 비(非) 모방(模倣) 예술에도 외관으로서 이미지가 표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술에서도 현실의 실재(實在) 대상에서 떨어져 나와 오직 우리의 눈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가상의 시각적 형태의 감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형예술은 비전(vision)으로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자연으로부터 추상된 관념적(觀念) 허구(虛構)로서의 가

상적 성격을 갖는다.¹⁾

본인은 도상의 상징성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는 힘에도 주목한다. 상징체계야 말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대중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일부 국가의 선거에서 코끼리나 원숭이 같은 동물을 자신의 상징물로 채택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나의 상징체계로 그려진 동물의 이미지는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익숙해진 상징체계는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 된다.

본인의 작품에 드러내는 동물 도상은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와 같은 상징성을 내포한다.

2. 조형적 특성

1) 형태의 특징과 구조

기하학(幾何學, geometry)은 토지 측량을 위해 도형을 연구하는데서 기원 했으며, 공간의 수리적(數理的)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²⁾는 “인간은 기하학적 동물이다. 정신은 기하학을 창시하였고, 기하학은 질서를 주려는 학문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호소하는 예술작품은 기하학이 명확히 느껴지는 작품이다.”³⁾라고 하였다.

1) 가와노 히로시(川野洋), 진중권 옮김, 「예술, 기호, 정보」, 중원문화, 2010, p.84

2)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0.6 ~ 1965.8.27), 본명 Charles Edouard Jeanneret-Gris.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건축가, 화가, 디자이너.

3) 이선희, 「르 꼬르뷔제의 유산」, 「꾸밈4월호」, 1987, p.127

즉,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직접적으로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조형 형태로서 인간성이 포함될 수 있는 감각적 조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란 복잡한 자연물들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서 경향성이 이루어낸 인공적인 추상(抽象) 형태이며, 인간의 이지(理智)적인 사고체계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⁴⁾고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는 불필요한 형태를 덜어내고 가장 큰 특징적인 면(面)들만을 살려 표현하였다. 동물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조형성을 강조한 형태는 본인의 주관적 해석을 걸쳐 평면적 특징을 지닌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면들이 제거되고 큰 면들만 남은 동물 조각의 형태는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본질(本質)만 남은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하학적인 조형 형태는 물질의 시각성을 더욱 드러내 보이는 효과를 가져 오고 형태와 재료의 특성을 오버랩(overlap) 시킨다.

또한, 본인의 작품은 수평적 구조를 가진다. 작품에서 수평적 구조는 동물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설치와 그림에서 나타난다. 수평선은 그린랜드로의 연결을 의미하며 공간을 확장시키고 그린랜드는 동물에게 푸른 대지인 이상적 공간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4)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6, p.86

19세기 독일의 대표적 풍경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⁵⁾는 풍경화의 <그림1>, <그림2> 형식에서 수평선의 반복, 밝음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조(對照), 화면의 이분(二分)화, 등 돌린 인간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화면을 넘어서서 끝없이 전개되는 공간, 즉 ‘무한(無限)한’ 공간 효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는 자연을 신의 계시가 구현된 곳, 숭고한 자연의 원리가 작용되는 보편적인 세계, 현실의 정치나 사회에서 충족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상의 세계로 이해함으로써 내용면에서도 ‘무한하고 영속적인 자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⁶⁾



그림 1.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Caspar David Friedrich), 그라이프스발트 부근의 초원 (Meadows near Greifswald), 캔버스에 유채, 49 x 35 cm, 1822



그림 2.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울타리로 둘러싼 커다란 땅 (The Grosse Gehege near Dresden), 캔버스에 유채, 102.5 x 73.5 cm, 1832년, 드레스덴 국립 미술관 소장

프리드리히의 작품은 수평선을 반복이나 대상을 이입시켜 무한한 공간감으로의 이입을 꾀하였다는 점이 본인의 작품에서 의도한 점과 유사함을

5)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9.5 ~ 1840.5.7), 19세기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풍경화가.

6)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3, p.114

발견하였으며,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을 사용하는 주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서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동양인의 겸허(謙虛)한 태도에 더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통해 조화를 추구하는 면이 본인이 작품에서 이상공간을 구현하는 태도와 같음을 파악한다.

2) 색채의 상징과 의미

일반적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genre)에서 상징이 사용되는 까닭은 예술이 가시적(可視的)이고 감각적인 것 이상을 표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징은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감각적 대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상징은 보편적인 것, 신비한 것, 볼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반사광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장치다. 따라서 상징은 예술이 비가시적인 세계, 혹은 형이상학적 세계를 추구할 때면 언제나 등장했던 예술의 중요한 수사학 가운데 하나였다.⁷⁾

상징은 ‘그것은 이런 의미이다’라는 공동체 내부의 약속이며 이를 통해 공동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다. 상징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작품 속 색채가 지니는 상징으로서의 의미 그자체도 중요하지만, 색의 상징은 작품에서 작가 본인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지를 말해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인의 작품은 자연의 색의 상징으로 주로 녹색(綠)색깔의 계열로 나타난다. 인간과 동물은 식물의 녹색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 약 30억 년 전에 푸른 해초가 엽록소를 성장 시켰다. 엽록소에 닿은 태양빛은 광합성을 의미한다.

7)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300

광선 에너지는 결합에너지로 변화된다. 이 녹색 원소는 광합성(光合成)을 통하여 물의 수소를 동화(同化)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숨 쉬는 산소를 풀어 놓는다. 이처럼 산소 대기권은 무엇보다 먼저 녹색 해초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지구대기권의 오존층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를 살상시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녹색해초 덕분이다.⁸⁾

녹색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경험도 생명의 원천(源泉)과 태아 영역인 수분이 있는 요소와 연관된다. 수분은 녹색을 만들어낸다. 습지와 늪, 초기 삶의 장소들은 자연에서는 녹색으로 나타난다.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습지와 늪지 동물들은 여기에서 생겨났다.

녹색은 오늘날 우리의 지구와 도시에 미적(美的) 효과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작용을 한다. 인간과 녹색과의 관계는 생존 그 자체이다. 그러나 녹색의 원형은 자연과 환경의 재발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자연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에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녹색을 자연의 상징으로서 정의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색으로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8) 리델 인그리트(Ingrid Riedel), 「색의 신비」, 학지사, 2004, p.137

3. 작품분석



【작품 1】 그린랜드를 찾아서 I

【작품 1】 그린랜드를 찾아서 I

연도 : 2012년

크기: 가변설치

재료 : 백시멘트, 타일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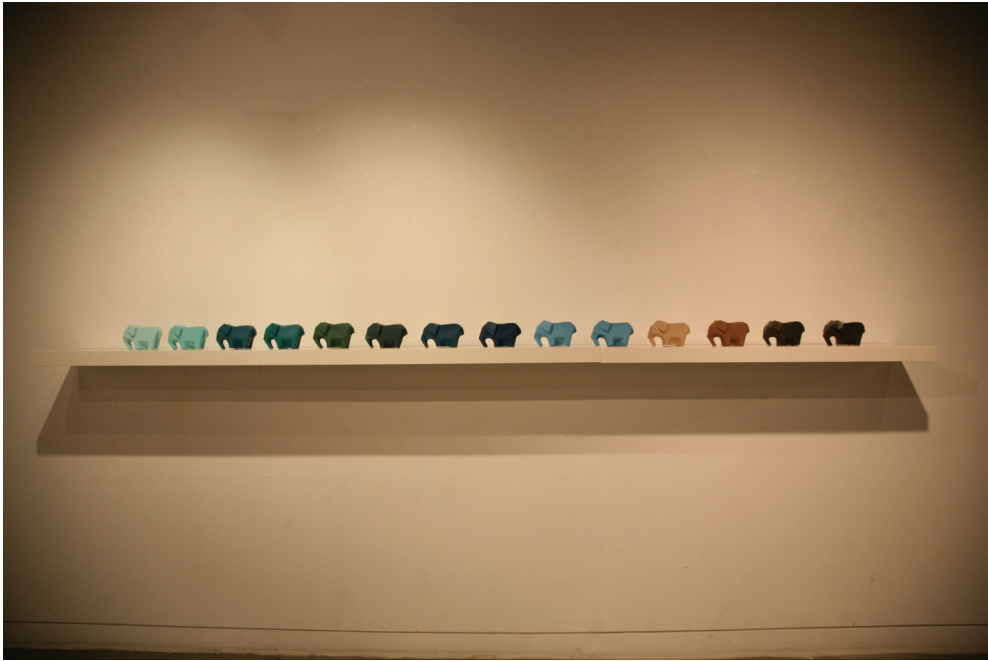
1. 큰 덩어리의 스티로폼을 열선을 이용하여 코끼리 모양의 형태로 조각한다.
2. 조각한 코끼리 형태에 물풀을 개어 바른 후 건조시킨다.
3. 백시멘트에 물을 섞어 갠 후 타일본드를 5:1비율로 혼합하여 코끼리 조각 스티로폼에 톱니헤라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면을 맞추어가며 바른 후 건조시킨다.
4. 굳은 코끼리 형태에 타일을 타일본드를 이용하여 면을 맞추어 가며 붙인다.
5. 타일을 붙이면서 발생하는 빈 공간에 백시멘트를 채워 넣으며 작업하고 타일 붙이기 작업이 끝나면 스폰지를 이용하여 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작품설명

코끼리는 숲에 사는 대표적 동물로서 본인의 작품에서 자연과 동물을 연결지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동시에 본인의 심상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숲의 나무가 벌목되어짐에 따라 먹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점점 작아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듯 유도되어진 작품의 설치는 사라져 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대변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를 관람하며 공간을 체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코끼리라는 매개체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전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코끼리에

동요되어 이상공간으로 동조되고 있는 동물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움직임에 합류하게 되는 자리를 제공한다. 본인은 이를 통해 자연으로의 사유를 꿈꾼다.

재료로 사용한 타일은 파랑색으로 파랑색은 우울한 심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생태계의 평형의 균열을 의미한다. 조각조각 깨어 붙인 타일은 깨어진 생태계 평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2】 그린랜드를 찾아서Ⅱ

【작품 2】 그린랜드를 찾아서 II

연도 : 2012년

크기 : 300x8x10(cm)

재료 : FRP,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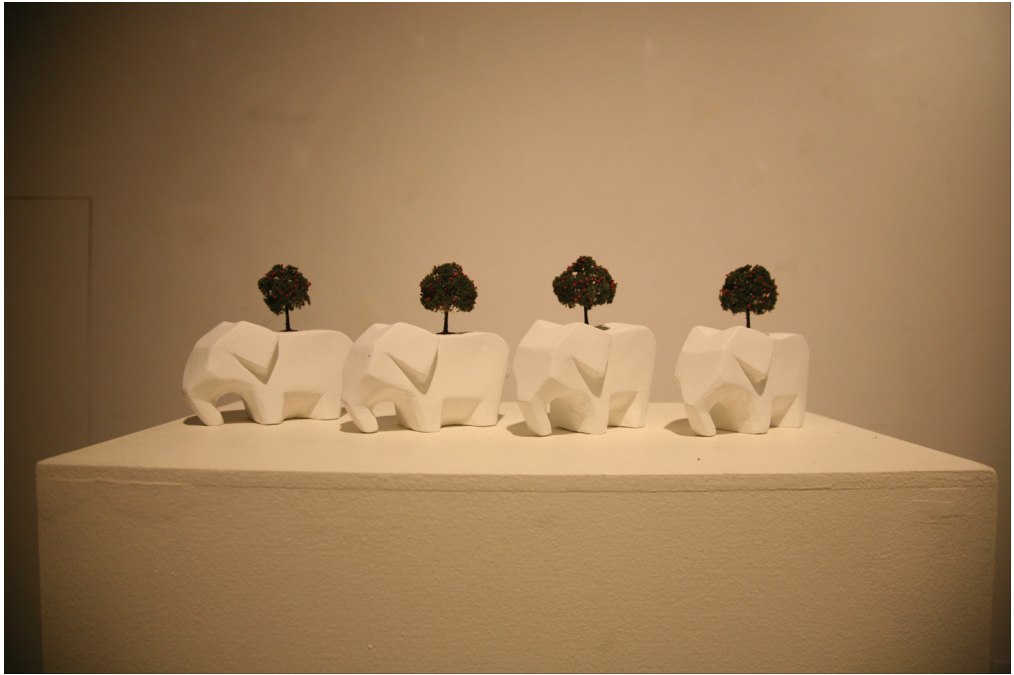
제작방법

1. 구상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마친 형상물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

작품설명

G선상의 아리아처럼 하나의 선에 놓여진 코끼리들은 한쪽 방향을 향해 놓여져 있으며 하나의 선상이 갖는 수평적 구조는 ‘무한한’ 공간의 효과를 준다. 수평적 구조는 무한한 공간으로의 이입을 꾀하며 사유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서정적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공간은 그린랜드로 표현되어 지고 희망을 품고 이상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코끼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녹색 계열의 색으로 나타낸 코끼리들은 자연의 이미지를 색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색의 상징은 작품에서 본인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말해준다. 코끼리들의 이동은 이상적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그 곳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작품 3】 그린랜드를 찾아서Ⅲ

【작품 3】 그린랜드를 찾아서Ⅲ

연도 : 2012년

크기 : 60x8x10(cm)

재료 : FRP

제작방법

1. 구상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마친 형상물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
6. 완성된 작품에 나무 모형을 조합한다.

작품설명

흰색 코끼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희망하는 본인의 심상을 색을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코끼리가 이고 가는 나무는 동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자연을 구성하는 환경중 하나이고 숲을 이루는 삶의 터전이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나무를 등에 이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서식지를 이동하는 동물의 모습을 코끼리를 매개체로 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이상적 공간으로 나타난 그린랜드를 찾아 이동하는 코끼리의 모습은 <작품2>와 같이 작품의 설치로 만들어낸 수평적 구조이자 대지를 나타내며 무한한 공간으로의 연결성을 의미한다. 마치 한 길에 놓여진 모습으로 길 위의 코끼리는 이상적 공간인 그린랜드를 찾아 떠난다.



【작품 4】 그린랜드를 찾아서Ⅳ

【작품 4】 그린랜드를 찾아서Ⅳ

연도 : 2012년

크기 : 각 40x40x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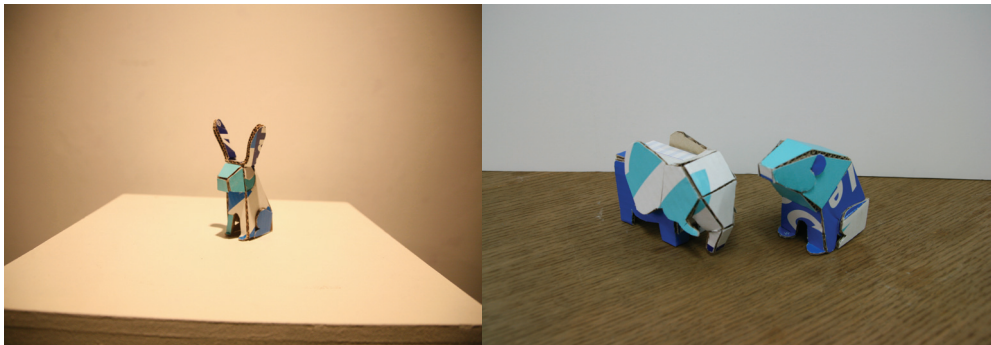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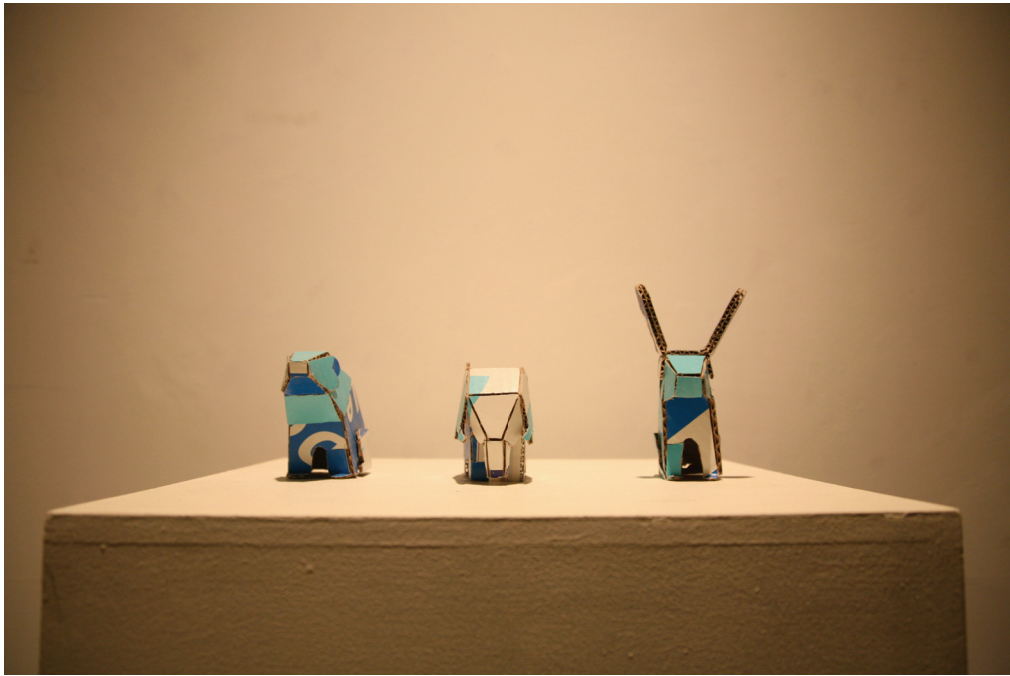
재료 : FRP

제작방법

1. 구상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마친 형상물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

작품설명

곰은 현재 자연환경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동물중 하나로서 자연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희망하며 제작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는 간결한 형태로 인공적인 추상 형태를 나타낸다. 곰의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 불필요한 면들을 제거 시키고 단순화 시켜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초록색으로 나타난 곰의 이미지는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DoubleA animals

【작품 5】 DoubleA animals

연도 : 2011년

크기 : 각 15x15x15(cm)

재료 : 복사용지 박스

제작방법

1. 만들 동물이미지를 구상한다.
2. 박스를 펼쳐 도면을 그린다.
3. 칼로 도면을 잘라낸다.
4. 접착제를 이용하여 면을 붙여 형태를 만든다.

작품설명

인간은 숲의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든다. 숲의 나무가 베어짐에 따라 동물들은 살 곳을 잃어버린다. 이는 자연환경 변화와 생태계 평형의 균열을 가져온다. 본인은 숲에서 베어진 나무로 만든 종이를 동물조각을 만들어 다시 숲으로 돌려보낸다는 가정을 하고 제작하였다. 이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을 사용하는 주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동물조각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이다.

오브제로 사용된 종이의 종류는 복사용지 박스이며 복사용지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의 대표적 이미지라 생각되어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종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소재를 표현한 이유는 종이의 재료적 특성을 밖으로 더욱 드러내어 재료와 형태를 오버랩 시키기

위함이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물질의 시각성(visibility)을 확대시키고 종이라는 사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본인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 6】 그린랜드를 찾아서 V

【작품 6】 그린랜드를 찾아서 V

연도 : 2012년

크기 : 120x20(cm)

재료 : 아크릴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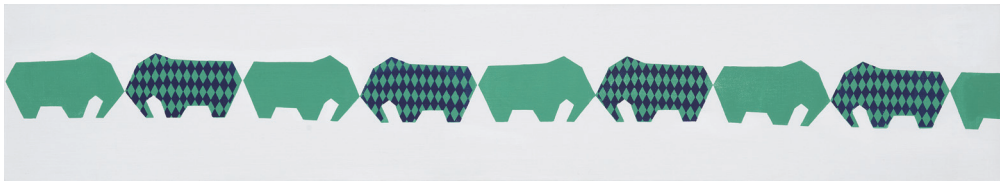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캔버스를 제작하여 젯소를 칠하고 건조시킨다.
2. 스케치를 한다.
3.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을 한다.
4. 완전히 건조시킨 후 코팅제를 발라 마감한다.

작품설명

초원위의 코끼리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수평으로 나타난 색의 이미지는 하늘과 바다, 숲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작품에서 사용된 그린계열의 색은 자연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푸른 초원위의 한 마리 흰 코끼리는 본인의 심상을 대변하며 희망을 품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 모습을 표현하였다.

선과 색으로 절제되어 표현한 수평선의 반복적 표현방법과 수평적 구조는 끝없이 전개되는 무한한 자연공간의 효과를 주기위해 사용하였으며 멀리 있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고 수평적 구조의 표현으로 무한한 공간으로의 이입을 꾀하였다. 그린랜드는 아름다운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이며 사유의 공간이 된다.



【작품 7】 그린랜드를 찾아서Ⅵ

【작품 7】 그린랜드를 찾아서VI

연도 : 2012년

크기 : 120x20(cm)

재료 : 실크스크린

제작방법

1. 틀에 실크를 씌운다.
2. 실크 천에 밑그림을 그린다.
3. 필름을 만든다.
4. 감광액을 바르고 감광한 후 씻어낸다.
5. 아교풀을 칠하여 말린다.
6. 판 밑에 종이를 놓고 판에 잉크를 붓고 스퀴지로 밀어 찍어낸다.

작품설명

코끼리와 자연의 이미지를 기하학적 패턴과 색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코끼리는 숲에 사는 대표적 동물로서 코끼리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색으로 나타내고 이미지의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는 복잡한 자연으로부터 얻어낸 간결한 은유적 표현이며,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패턴은 숲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코끼리 도상에 중첩되어 나타난 패턴은 자연과 동물의 공존을 의미하며 수평적 공간은 <작품2>, <작품3>, <작품6>과 같은 의미이다.

Ⅲ. 결 론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의 대립각적 패러다임은 없다.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 자연이 보존될 수 있으며 우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자연은 무언(無言)의 정연한 질서를 가진 인간 본래의 터전으로써 항상 인간과 가까이 있으며 인간은 그 자연을 통해 생명체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즉 자연과 인간이 공감아 되는 의미의 교합이 이루어 질 때에 예술은 발현된다.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예술적 소재를 제공하여 왔으며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조하면서 체험한 미를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유기적 관계인 동물을 매개체로 하여 작업하고 그린랜드라는 자연의 이상공간을 설정하여 이상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물은 인간과 함께 공존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동물조각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하여 고찰하고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을 사용하는 주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와 제작과정을 통하여 예술의 창작 대상으로서 자연의 무한한 조형적 요소의 잠재력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자연과 생명체, 나아가 인간과 끊임없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인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인식하고 자연과의 공존에 초점을 두어 창의적인 조형세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와노 히로시(川野洋), 진중권 옮김, 「예술, 기호, 정보」, 중원문화, 2010

리델 인그리트(Ingrid Riedel), 「색의 신비」, 학지사, 2004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3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월간미술사, 「세계 미술 용어사전, 월간 미술사, 1996

유수연, 황연숙, 황지현, 장경수 공저, 「색채의 공간」, 기문당, 2008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2000

이선희, 「르 꼬르뷔제의 유산」, 「꾸밈4월호」, 1987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6

ABSTRACT

Study on Expression of the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Animals

Choi, Go Yeong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nkind is considered the most unique creature on earth because of paradigms such as culture and civilizations. However, mankind cannot be the only being in the nature hence live in harmony with the nature.

Since the foundation of modern science in the 17th century, mankind had encouraged progress with an optimistic perspective. Therefore the course of science had been set to enforce the nature of technology an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environment had become helpless against brutal tyrann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many agree that the future provided by technology is no longer bright after facing man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demolition of eco system,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and extinction of species. These environmental issues shall not be limited to science and government and artists as member of society should be open-minded and take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society.

In the art works,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disposable consumer goods mankind take for granted are reflect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ss of habitats of many animals due to destruction of eco system caused by mankind and the enforced migration are expressed.

The main topic of the thesis is 'Expression of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animals' and is organized into three sections. In the introduction, purpose of art works and the methodology are explained. In the second section, importance of environment to animals is analyzed to support the initial ideas of art works. Formative analysis is sub divided further by characteristics, structure and symbolic aspects of colors. Finally, 7 pieces of art works are analyzed individually. In the conclusion, summary of the thesis is presented along with the result of the research.